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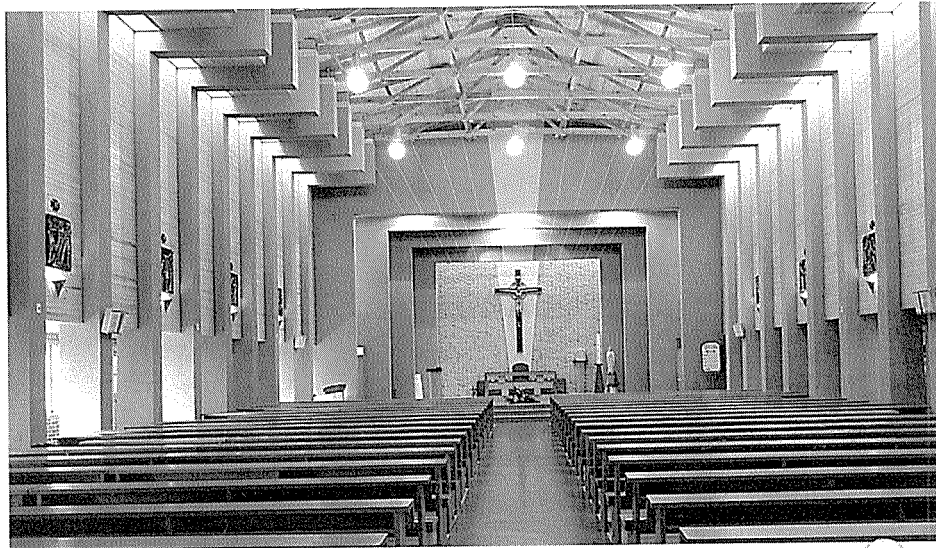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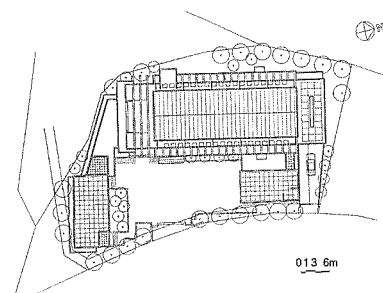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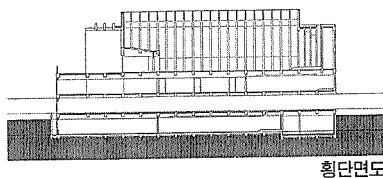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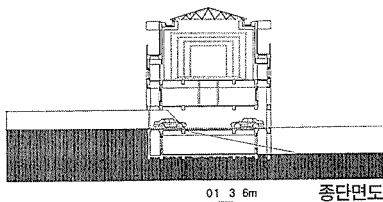
복현성당

Bok-hyun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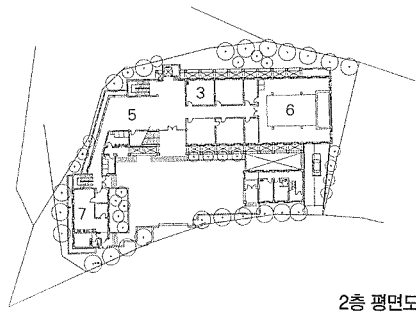
서보광 · 이중환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대구)
 Designed by Seo Bo-Kwang & Lee Jung-Hwa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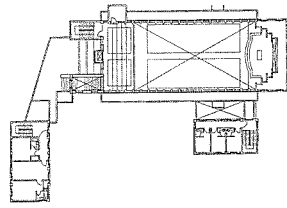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 21-5
대지면적	1,996.04㎡
건축면적	985.30㎡
연면적	3,750.65㎡
건폐율	49.36%
용적률	148.36%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상1층, 지하4층
외부마감	벽 - 적벽돌 치장쌓기+노출 콘크리트 위 발수제 마감+화강석 버너마감
	지붕 - 동판 지붕잇기
내부마감	벽 - 적벽돌 치장쌓기+모르타워 내부용 본타일
	바닥 - 화강석 물갈기+디럭스 타일
	천장 - 목조 트러스 노출+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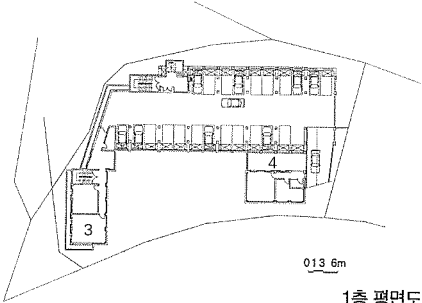
주위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단 등이 위치한 도심지의 경사지에 자리잡은 이 성당은 대지의 입지 조건상 종교적인 상징과 도시적인 상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형 성당으로의 계획이 요구되었다. 건물의 배치계획은 주도로의 축인 남북의 축과 진입을 위한 동서의 축을 중심으로 주건물인 대성당을 전면도로의 축에 배치하여 도로에서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경사진 대지의 조건상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분이 지중매설됨으로써 채광, 환기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성당의 출입은 2층에서 시작되도록 하였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사제관, 수녀원의 출입구를 성당과 분리하여 외부와 연계시키고, 각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였다. 기본적인 매스계획은 성당, 사제관, 수녀원의 3개의 매스로 구분된 C자형의 평면을 가진 형태이다. 공간의 적절한 분리를 요하는 수녀님들의 작업공간과 일상적인 생활공간 그리고 사제를 위한 공간들이 핵심공간인 성당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앞마당에서 진입하는 2층 만남의 광장은 각 교리실과 연계되는 홀로써 신자들의 친교의 공간이며 3층 대성당 내부로 연결된다. 사제관은 층별로 대성당과 연결되며 수녀원은 두 매스를 결합하는 옥외 브릿지를 통해 대성당으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입면적으로는 단순하며 절제된 조적벽의 매스와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과다한 첨탑과 고딕형태의 사용을 탈피함으로써 종교건물이 갖기 쉬운 위압감을 배제시켰다. 건물의 디자인 요소로는 각 매스마다 높이를 달리하여 외부에 변화감을 주었고 대성당의 내부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장방형 패턴의 보위에 목조 트러스를 엮힘으로써 보자체가 도리역할을 함으로 우리것에 대한 표현을 유도했다. 또한, 노출보가 기둥과 연결되어 일정한 간격이 반복됨으로 느낄 수 있는 중첩감을 표현했고, 그 사이의 톱라이트를 통한 자연광의 도입은 성스러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종교건축을 일정한 틀에 얽매어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교건축이 가지는 웅장함보다 종교적인 내면성을 표현하고, 이 건축물을 찾는 이들이 그 내면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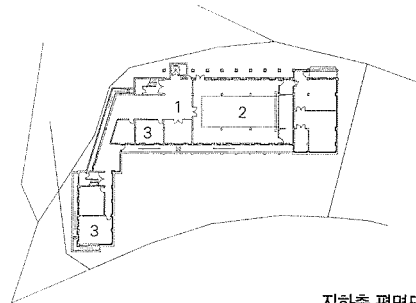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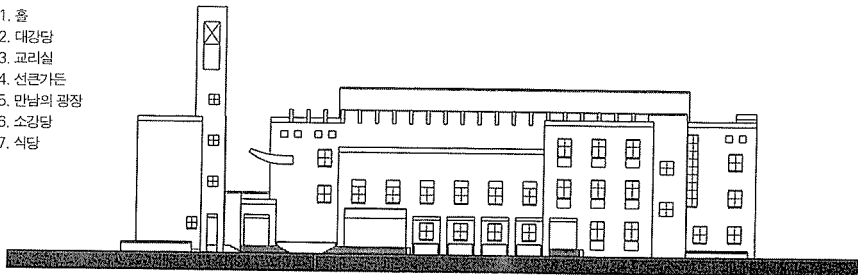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1. 홀
- 2. 대강당
- 3. 교리실
- 4. 선관가든
- 5. 만남의 광장
- 6. 소강당
- 7. 식당



0 1 3 6m

정면도

